

## 韓國林產物貿易의 動態와 展望 \*<sup>1</sup>

崔 玖 休 \*<sup>2</sup>

A Study on Trends and Prospects of Forest Products Trade in Korea \*<sup>1</sup>

Min Hyu Choi \*<sup>2</sup>

### 要 約

國內 山林資源이 不足한 韓國의 立場에서 볼 때 木材의 需給均衡을 為하여 外材에 크게 依存해야함은 어찌할 수 없다 하겠으나, 다른 한편 이에 相應하는 各種 林產物의 輸出을 通하여 어떻게 林產物의 貿易收支의 均衡에 留意하여 왔는지를 지난 約 20 餘年間의 時系列 資料를 通하여 살펴보았다. 1960 年代부터 1970 年代末까지는 이러한 均衡維持가 持續되었으나, 1979 年 第 2 次 油類波動 以後로는 減次 不均衡이 露呈된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世界經濟의 貿易依存度는 날로 增大되어 가는 趨勢에 있고, 韓國經濟가 處於 諸盤與件의 對外指向政策을 採擇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에 놓여 있는限, 國民經濟의 一翼을 擔當하고 있는 林業部門에 있어서도 林產物 貿易의 擴大를 通하여 그 收支均衡을 回復하는 데 最善의 努力を 기우릴 必要가 있다.

한편 木材輸入政策은, 外材依存度가 85 %임에 비추어 木材需給과 物價安定에 外材의 比重이 매우 클뿐아니라, 그 價格機能을 通하여 國內 木材資源造成을 為한 投資環境造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慎重을 期할 必要가 있으며, 이러한 觀點에서 現行 木材輸入 自由化制度는 마땅히 再檢討되어야 한다.

### Summary

In the light of real situation of Korean timber resources, it is no wonder that Korean economy depends on a lot of imported timber, however, we only need to draw attention how have they kept the balance of payment in the field of forest products trade for the last few decades, until the second oil crisis in 1979.

Afterwards, the gap between imports and exports of forest products in terms of value has been widened so far, on account of various reasons inside and outside.

However, according to national economic policy to drive more active exportation, new policy and strategy to expend world market of forest products urgently expectable in order to shorten the gap between imports and exports of forest products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timber importation policy should be reconsidered, not only to

\*<sup>1</sup>. 接受 4月15日 Received April 15, 1986.

\*<sup>2</sup>. 山林廳 林政局 Div. of Forest Policy, Forestry Administration, Seoul, 131, Korea.

support optimum domestic timber price level so as to compensate timber producers' cost but also to make suitable economic environment to induce new investments in the field of private forestry sector.

Key words: forest products trade, korean timber resources, current timber importation policy.

## 1. 緒論

韓國經濟는 賦存資源은 적고 人口는 많으며 國內市場이 넓지 못하여 對外指向 經濟政策을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實情이며, 實際로 지난 70年代以後 80年代中반까지 國民總生產의 約 40%를 輸出에 依存해 온 것도 事實이다.

林產物의 輸出은 그 品目數가 70餘種에 達한 것에 比한다면 全體의 輸出額이 많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反面 그 附加價值率이 非常 높을뿐만 아니라 그 大部分이 農家所得과 直結되어 있다는 點에서 그 意味는 더욱 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林業部門 역시 賦存資源이 貧弱한 형편이므로 60年代 初부터 南洋林를 導入하여 勞動集約的輕工業部門인 合板產業을 일으켜 海外市場을 開拓함으로서 實際로 全體輸出을 主導했었으며, 그후 70年代末까지는 林產物의 貿易收支의 均衡을 維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換言하면 莫大한 量의 外材를 사다 쓰면서도 그 一部를 加工輸出해서 번 外貨로 國內消費用 나무값을 치루어나갈 수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던 것이 1979年 第2次 油類波動以後 80年代에 들어서면서 事情은 달라졌으며, 林產物貿易收支는 현저한 赤字를 示顯하기에 이르렀다.(圖1参照)

이러한 時點에서 먼저 世界經濟의 推移를 概觀하고 韓國의 對外指向政策의 틀속에서 林產物貿易의 動態와 展望을 살펴봄으로서 새 時代에 相應한 對應戰略을 謀索해 볼 必要가 있다.

## 2. 本論

### 2.1 世界經濟의 變化와 韓國의 對外指向政策

지난 1960年代以後로 世界商品去來는 크게 增大되어 왔으며 世界貿易依存度는 1960年 21% 이던 것이 1980年에는 39%로 거의 倍增하였고, 特히 新興工業國들(韓國, 台灣, 香港,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등 6個國)의 그것은, 貿易擴大量 通한 成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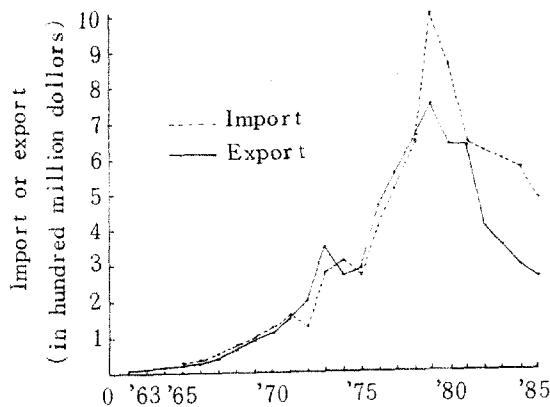


Fig.1. Forest products import and export by year<sup>3)</sup>

Source : Forestry Administration of Korea.

政策의 採擇으로, 1960年 29%에서 1980年 50% 水準으로 增大되었다.

Table 1. Trends of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sup>4)</sup>

	1960	1970	1980	1983
All free world	20.7	23.5	39.2	:
U S A	7.3	8.7	18.4	14.4
JAPAN	20.5	18.6	26.3	23.6
E C	32.0	36.7	50.0	50.7
NICS*	29.4	24.5	43.3	49.7

\* ROK, Taiwan, Hong Kong, Singapore, Brazil, Mexico

Source : Economic Planning Board, R.O.K.

이와같이 世界經濟의 貿易依存度(經濟價格基準 輸出入合計額의 GDP에 對한 百分率)가 漸高해가고 있다는 것은 各 國民經濟間의 相互依存關係가 보다 繁密화해 가고 있다는 뜻이된다. 다른 한편으로 世界經濟의 特性은 比較優位構造의 急速한 變化를 들 수 있는 바, 例컨데, 섬유류와 消費財 등 勞動集約產業에서 開途國의 比較優位가 크게 높아진 反面, 美

國을 비롯한 先進國은 서비스產業의 對商品 輸出比率이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다른한편, 2次世界大戰以後, GATT를 中心으로 한 多者間自由貿易體係는, 各自自國의 事情과 利害를 앞세우게 됨에 따라, 漸次 弱化되고 있어, 所謂 뉴-라운드를 通해 새로운 改善努力이 登場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스스로 限界가 있으므로, 結국은 雙務主義와 地域主義가 現實的인 接近方法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을것이며, 앞으로 各種 輸入制限指置와 貿易摩察은 계속될 展望이면서도, 또한 國民經濟間에 相互依存關係와 國際化, 開放化는 더욱 進展될 것으로 展望된다. 即 統計에 의하면, 世界GDP가 1% 成長할 때, 世界貿易量은 約 1.8%가 增大될것으로 보이며, 特히 亞細亞太平洋地域國家들은 對外指向 政策을 採擇하고 있어, 貿易量 增加率은 全世界의 것 (6% 水準)보다 높은 8~9% 水準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Table 2. Growth rates in GDP and trade<sup>(1)</sup> (%)

	1960~ 1973	1974~ 1984	1985~ 2000
Elasticity of world trade growth to its GDP growth	1.6	1.8	1.8
World trade growth rate	8.2	5.3	1.8
Asia pacific region trade growth rate*	9.1	8.4	8-9%

\* ROK, Taiwan, Hong Kong, 5 Asian member countries,

Source: Economic Planning Board, R.O.K.

한편 우리나라 經濟의 對外依存度를 살펴보면, 1962年에 21.7%에서 1984년에는 74.3%로 크게 增加되어 왔으며, GNP에 대한 比率은 1962年的 2.3%에서 1984年에는 80.6%로 무려 40倍나 增加하였다. 따라서 1970~1984年間 輸出이 GNP成長의 約 40%를 擔當함으로써 成長原動力의 復割을 하였을 뿐아니라, 石油波動等 經濟의 危機를 對外進出의 成果로 克服하는데 크게 기여하여왔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對外貿易을 더욱 開放하여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を 높이고 交易相對國의 開放壓力에 對應해야 한다는 것이 基本的인 政府의 對外

政策이며, 輸入管理方式을 1967年 negative system으로 轉換한 以來 輸入自由化的 幅을 꾸준히 넓혀온 以來 1985年의 그 것은 87.7%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先進國들의 市場開放壓力은 날로 深化되고 있는 趨勢이다. 아무튼 우리나라經濟는 앞으로도 계속 對外指向을 포기할 수 없는 實情이며 이와같은 國民經濟의 土台위에서 林產物의 輸出과 輸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對應戰略을 살펴보기로 한다.

## 2.2 林產物의 輸出動向과 展望

지난 1962年부터 1985年에 걸쳐 우리나라 全品目에 걸친 輸出總額은 年平均 約 34%의 伸張率을 보여왔으며 林產物의 그것도 約 29%의 伸張率을 보이고 있다. (表3 參照)

1964~1973年까지 10年間 林產物輸出이 全體輸出額의 10~14%를 차지함으로서 輸出立國에 크게 기여하여왔으나, 1974年 第1차 石油波動以後로는 全體輸出에 對한 林產物輸出의 比率이 漸次 줄어들어 1985年에는 1%를 下하하기에 이르렀다.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2年에 3百8弗로 부터 始作했던 林產物 輸出은 해가 갈수록 急伸張勢를 보여, 1979年 737百萬弗을 頂點으로 急速한 下降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林產物의 總輸出對象品目數는 70餘種에 達하나 合板, 木材, 木製品, 芽孢 벽지, 石材, 瓷瓦, 송이, 밤 等이 主宗品目이며 명계로, 떡갈 잎등 餘他品目은 모두 합하여도 年間 4百萬弗内外이다. 그 가운데서도 特히 輸出主宗品目은 合板이었으며, 全量을 京南亞地域에서 들여온 原木을 主原料로하여 各種 合板을 製作, 美國을 비롯한 各地域에 輸出하여왔다. 그러나 80年代에 접어들면서 合板輸出은 急速히 運轉되어왔으며,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合板輸出展望이 밝게만 보이지는 않은 實情이다.

그理由는 인도네시아等 資源保有國의 合板輸出力量이 急速히 增大해온 反面, 國內의 賓金上昇 등 費用上昇要因이 겹치어 合板產業의 國際競爭力이 弱化되어 왔으며, 特히 過重한 債務의 壓迫과 施設의 老朽화 및 새 技術開發과 資本投資의 沖滯 등 韓國合板產業의 構造的矛盾과 美國을 為始한 世界的 스테그프레이션 (stagflation)에 依한 海外輸出市場의 狹隘화가 큰 要因이 되어있다.

Table 3. Forest products export<sup>1)</sup>

(in thousand US dollars)

	Plywood	Timber	Wood products	Wall paper	Stone	Oak mushroom	Pine mushroom	Chest-nuts	The others	Total
1962	2,973			128		375				3,476
63	6,782			224		259				7,265
64	12,550	38		542		528				13,658
65	19,055	11	26	1,458		309				20,859
66	30,683		144	1,973		342		14	334	33,490
67	41,404	99	59	1,678		383	60	37	484	44,204
68	67,408	50	261	2,363		493	76	16	900	71,567
69	81,758	231	1,313	2,500		402	412	21	904	87,541
1970	102,396	347	1,149	4,114		738	605	22	759	110,130
71	138,724	891	4,383	3,477	658	910	788	24	1,726	150,581
72	175,236	4,506	6,914	4,286	818	1,991	1,244	26	2,026	197,027
73	286,439	27,542	16,050	6,259	2,918	3,135	3,251	45	6,402	352,041
74	188,888	28,522	19,059	11,702	13,583	2,022	1,781	15	4,700	270,272
75	228,754	18,403	8,835	12,120	12,019	3,323	6,391	45	3,776	293,666
76	347,589	38,407	17,043	19,534	23,292	4,536	4,905	839	3,769	459,914
77	389,003	54,431	20,582	29,889	31,016	9,135	8,672	3,047	3,443	549,218
78	411,954	79,801	28,377	38,025	52,622	9,037	25,875	8,230	2,943	656,864
79	447,928	115,308	28,088	40,537	61,908	8,857	16,370	14,456	4,137	737,588
1980	352,199	82,262	37,274	34,907	57,682	10,704	13,521	36,771	3,716	629,036
81	391,645	48,483	33,635	35,579	67,421	5,935	16,841	26,255	5,178	630,972
82	201,126	33,439	27,782	24,941	71,029	2,989	10,385	25,923	3,987	400,791
83	109,857	19,230	36,042	29,548	73,911	13,693	28,013	38,814	4,305	353,413
84	66,579	26,039	30,856	17,096	75,511	9,085	24,064	47,117	4,981	300,428
85	39,807	20,546	17,536	16,460	84,480	10,622	32,831	37,427	3,855	263,564

Source : Forestry Administration, R.O.K.

木材(製材木) 역시 日本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輸出하여 왔으나近來 이 地域國家들의建設景氣萎縮으로輸出需要가 減少되었을 뿐 아니라, 資源保有國의 生產輸出能力의 向上으로 현저히輸出競爭力이 弱화되고 있다. 木製品은 零細業體들이 포루라, 가작나무 등을 利用하여 木割著등을 製造하여 日本, 美國, 및 欧洲地域에輸出하여 왔으나 最近 中共製品등의 出現으로輸出與件이 어려워지고 있다.<sup>1)</sup>

壁紙輸出도 한때는 4千萬弗線까지輸出한 적도 있었으나 잘자, 물가등 原料價格이 上昇할뿐아니라 欧美地域의需要가 減退하고 있고 中共 및 台灣製品과價格競爭이 어려워지고 있는 實情이다.

以上 여러 製品들에 比하여, 輸出이 꾸준히增加되고 있는 品目은 石材, 송이버섯 및 깐밥 等이다.

石材는 비교적 資源이 豊富한 花崗岩으로 原石形態나 加工品을 만들어 日本市場에輸出해왔으나業界內部의 退當競爭과 價格이 中共 및 印度製品의 對日市場擴大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價格을 加工技術을 導入하여 原石보다는 附加價值가 높은 여러 가지 製品을 만들어輸出한다면 海外市場을維持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송이버섯의輸出은 그 豊盛에 따라起伏이 있으나 日本市場에 對하여 生產으로輸出되어왔다. 近來 北韓 및 中共產이 出現하고 있으므로 迅速하게 수집, 선별, 運送(空輸)하여 鮮度維持에 힘써야면 對日輸出을維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밤은 60年代以後 새마을所得事業으로 全國農民들

에 밤나무栽培를 권장한結果 每年 生產量은 늘어나고 있으나, 國內市場需要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머지는 깐밤 形態로 日本市場에 輸出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日本市場 역시 거의 限定되어 있는 實情이어서 밤輸出이 如意치 못하여 밤값이 暴落할 경우 農村社會에 심각한 社會問題화할 素地가 있는 品目이다. 이를豫想하여 80年代初부터 強力한 밤輸出드라이브施策의 하나로, 혹시 밤輸出로 因하여 發生할지라도 모르는 損失을 補填하기 위하여, 아-몬드輸入과 링크시켜본적도 있었으나 아-몬드 主輸出國인 美國側의 強力한 開放壓力으로 85年부터는 이를廢止한 대신에, 對日 깐밤輸出쿼타制로 轉換하고 있다. 即 지금까지 韓國產 깐밤은 韓·日間에 서로 代替市場이 없는 實情이어서 兩側 輸出入業者團體間에 協議價格으로 去來해 왔었음에도 韓國側 業體間에 이를 어기고 過當競爭과 輸出秩序

를 문란시킨 例가 있어 實質的으로 協議價格을 떨어뜨려왔으므로, 이를 是正키 위하여 輸出쿼타제를導入하게 되었다. 그內容in즉, 깐밤輸出業者團體에서 自律的으로 各會員社의 輸出限度量을 定하여 實施하게 함으로서 輸出秩序를 維持하고 輸出價格을 지키도록하는 한편, 多數 零細 生產 農家의 不利益을 排除시키기 為하여 깐밤輸出用 原料밤에 대하여 双方間에 그 等級에 따른 協議價格을 定하여 實施함으로서 밤生產者 受取價格을 支持하여 밤輸出로 因한 惠擇을 生產農家에게까지 고루 돌아가게 하자함이며, 이 새 制度로서相當한 成果를 거두고 있는 實情이다.

### 2.3 林產物의 輸入動向과 展望

1960年代부터 國民經濟가 急速하게 成長하고 合板등 林產物加工輸出이 增加함에 따라 木材需要는 急

Table 4. Timber imports by countries<sup>3)</sup>

(in thousand US dollars)

	South-east Asian logs				Subtotal	Softwoods			Subtotal	The others	Total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P.N.G.		U.S.A	New Zealand	Chile			
1965	-	16,800	7,534	-	24,334	720	460	-	1,180	480	25,994
66	-	21,549	11,846	-	33,395	2,775	1,273	-	4,048	833	38,276
67	-	31,591	15,629	-	47,220	4,969	1,963	-	6,932	584	54,736
68	1,813	42,195	13,522	-	57,530	12,179	2,881	-	15,020	1,616	74,206
69	6,414	51,090	32,672	-	90,176	5,696	2,497	-	8,193	1,396	99,765
1970	19,457	59,923	33,152	-	112,532	9,549	2,227	-	11,776	1,143	125,451
71	42,638	59,418	40,012	-	142,068	14,032	2,450	-	16,482	2,445	160,995
72	57,929	45,903	13,770	-	117,602	10,543	1,633	-	12,176	1,455	131,233
73	131,838	94,388	20,519	-	246,745	30,689	2,946	-	33,635	3,210	283,590
74	154,755	92,121	11,556	-	258,432	48,187	1,192	-	49,379	4,761	312,572
75	142,253	81,561	12,587	-	236,401	30,624	-	-	30,624	2,165	269,190
76	227,834	118,277	5,576	-	351,687	53,779	3,715	-	57,494	6,117	415,298
77	315,237	108,341	1,727	-	424,305	85,436	3,433	-	92,869	6,021	524,195
78	358,091	105,846	2,512	-	466,449	125,903	6,102	29,321	161,326	14,962	642,737
79	441,145	333,396	6,761	10,523	791,825	129,530	15,498	34,901	179,929	36,777	1,008,531
1980	284,462	351,178	11,087	13,286	660,013	134,085	19,556	24,583	178,224	19,991	858,228
81	63,930	385,387	18,907	27,423	495,647	104,537	-	21,302	125,839	13,149	634,635
82	13,170	363,017	31,394	43,590	451,171	122,417	-	19,903	142,320	14,196	607,687
83	28,548	288,095	30,373	41,536	388,552	150,518	5,694	14,797	171,009	28,279	587,840
84	14,653	239,446	23,695	74,035	351,827	143,718	8,341	17,343	169,403	45,396	566,625
85	1,312	203,988	6,622	69,075	280,997	141,907	6,096	28,564	176,567	21,792	479,356

Source : Forestry Administration R.O.K.

伸張해왔으며, 國內木材資源이 太不足한 現實에 비추어 그 大部分을 外材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木材飢餓에 長期安定의 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60年代 中葉부터 印尼를 中心으로 海外山林資源開發事業에着手하였다. 表4는 主要國別 外材輸入額을 보여주고 있다. 1970年代初까지만해도 松板類輸入은 南洋材의 10%에 不過했으나, 그후 漸次 增大되어 1985年에는 37%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主로 輸出用合板用材의 輸入減少에 基因하였다. 아무튼 外材輸入은 1979年 約 10億弗을 페-크로하여 減少傾向을 보여왔으며 1985年에는 50%가 떨어진 4億8千萬弗에 不過하다. 그 理由는 第2次 油類波動以後로 世界的인 소비구조변화는 美國·日本 등 經濟大國들의 建築景氣를 침체시켰고, 이로 因하여 世界木材市場은 販賣者市場에서 購買者市場으로 反轉되기에 이르렀다.

木材輸入國別로 輸入動向을 살펴보면, 70年代 인도네시아에 增加되었던 南洋材輸入市場은 80年代에 들어서면서 말레이지아로 바뀌었고, 특히 70年代까지 輸入이 全無했던 파푸아 뉴기니아產 雜木(所謂未利用樹種)이 80年代에 들어서면서 出現하여 增加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79~1980年前後로 急騰했던 南洋材의 國際價格으로 말미암아 未利用樹種의 利用開發技術이 開發되면서 새 南洋材樹種의 市場이 열리기 시작했던데 基因한다.<sup>9)</sup>

한편, 松板類의 輸入先是 美國이 支配的이며, 漸次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고 70年代 후반부터는 南美 칠레국으로부터 칠레松(뉴질랜드松과 같은 라디에타松)이 輸入되기 시작했던 바, 그 運賃에도 불구하고 南美材가 輸入되었던 것은 그만큼 產地價格이 높았기 때문이다.<sup>10)</sup>

## 2.4 林產物 貿易問題의 改善方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林產物輸出環境은 그 어느 品目에 있어서나 만만치 않다. 그러나 각 品目別 特性이 있으므로 政府나 業界 共히 打開策을 講求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合板의 경우 早速한 產業合理化를 通하여 自體再生力を 갖추고, 2次加工合板生產, 原價節減 및 新市場開拓에 力을 기울여 한편 政府로서도 良質의 支援資金을 配定할 必要가 있다.<sup>11)</sup>

製材 및 木製品의 경우도 原價節減과 收率向上은

勿論, 歐洲地域등에 進出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밤의 경우는 日本市場一邊倒로 깐밥만 輸出할 것이 아니라 中東이나 開發途上國 市場을 겨냥하여 둘째이나 加工 밤 輸出을 推進할 수 있을 조건이다. 한편으로 國내에 長期貯藏할 수 있는 技術開發과 施設擴張이 鉗선무가 아닐 수 없다. 종이버섯의 生態學的研究을 通하여 그 收穫量을 높이고 芳香性있는 새菌種開發 등의 研究도 必要하다. 石材輸出은 他林產物輸出品目과 달리 更新不可能한 埋藏資源일뿐 아니라 自然景觀을 해칠 우려가 있는 資源採取를前提로 하는 產業이므로 그 生產에 신중을 要해야 함은勿論, 輸出한 경우라도 原石보다는 製品輸出의 比重을 높여 附加價值를 높일 必要가 있다.

한편, 木材輸入制度는, 그 需給均衡을 단순히 物價次元에서만 볼것이 아니라 85%의 外材價格이 15%의 内材價格을 壓迫함으로서 國내 林業生產에莫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本質의 問題에 더욱 着目할 必要가 있다.<sup>12)</sup> 國土綠化政策에서 벗어나 一體一個 固有 產業으로서의 林業으로 育成해 강으로서 보다 長期의in 仁으로 農家所得을 올리고 木材自給率을 높일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適正材價維持가 先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13)</sup> 이러한 立場에서 본다면 1978年 木材輸入 自由化措置는 民營林業育成에逆行되는效果를 자아냈으며, 日本等 林業先進國에서도 失策으로 共認된 政策을<sup>14)</sup>, 貿易自由化라는 美名下에 產業의 特殊性을 무시한채 滥易當局에 依據 採擇함으로서 木材業界는 勿論 200万 林業生產 農民들의 憤聲을 높이고 있는 實情이다. 그 根源은 1960年 山林法 制定當時와 그 以後 數次 改正할 機會가 있었음에도 거기에 林產物 貿易 調節機能을 山林廳所管事項으로 確立시키지 못했던 這間의 山林政策觀도 猛省이 있어 마땅한 일이다. 아무튼 晚時之歎이 많지 않으나 이제라도 關係法令을 改應하여 綜合의 林業政策의 眼目에서 木材輸入을 規制할 수 있도록 措置할 必要가 있다.<sup>15)</sup> 이 問題는 1980年代가 當面하고 있는 最大的 林政課題임에 틀림이 없다.<sup>16)</sup>

## 3. 結論

1. 1965年~1985年까지 約 20年間에 걸친 林產物貿易收支는 大體로 均衡을 維持해왔으나 1979年 第2次 油類波動以後 현저히 惡化되었다.

2. 1980年에 들어서면서 林產物輸出이 둔화된데  
는 内外的인 要因이 있으나, 世界經濟의 趨勢나 韓  
國經濟의 對外指向政策으로 보아, 各 品目別 林產物  
輸出戰略도 새로이 多角度로 모색할 必要가 있다.

3. 特히 亂輸出地域을 多邊化할 必要가 있으며,  
對日 亂輸出制度도 輸出業界의 權益뿐 아니라 四  
萬 亂生產 農民들의 適正價格維持를 為하여 輸出制  
制를 持續的으로 實施하여 定着시킬 것이 要請된  
다.

4. 石材는 輸出林產物中 唯一한 埋藏資源 이므로  
自然景觀과 長期의 인 眼目에서 生產도록 할 것이며,  
原石輸出을 規制하면서 加加工品을 輸出도록 誘導해야  
한다.

5. 木材輸入制度는 物價側面이나 市場開放의 立  
場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內材價格과 農家所得 및  
林業投資 環境造成이라는 긴 眼目에서 綜合的인 林  
業政策의 次元에서 調節되어야 마땅하므로, 山林法  
關係條項을 改正하여 林產物貿易 調節機能을 林政當局  
의 固有機能으로 確立시키는 것이 緊要한 課題이다.

## 引用文獻

1. 經濟企劃院. 1985. 世界經濟環境의 變化와 開放政策 : 5-25.
2. 朴泰植. 1966. 林政概論 : 145-210.
3. 山林廳. 1985. 임업통계요람 : 282-293.
4.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韓國의 木材產業과  
木材需給展望
5. 塙谷 勉. 1984. 林政學 : 314-330.
6. 鈴木尚天. 1980. 現代林業經濟論 : 309-342.
7. 中川藤一. 1984. 國產材時代への戰略.
8. 岸根卓郎. 1980. 森林經濟學 : 123-153.
9. Japan Forest Technical Association. 1984.  
Forestry and Wood Industry in Japan.
10. Robinson Gregory. 1972. Forest Resource  
Economics: 506-531.
11. William A. Duerr. 1960. Fundamentals of  
Forestry Economics: 257-299.
12. William A. Duerr. 1985. Forestry Economics as  
Problem Solving : 41-4-50-2.